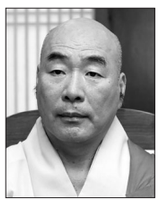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특보 · 문화교류특보 임명

사회특보 지일 · 문화교류특보 정우 스님



지일 스님



정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특별보좌관에 지일 스님, 문화교류특별보좌관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회특보 지일 스님과 문화교류특보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종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특보 지일 스님은 정련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연미사 주지를 역임했다.

문화교류특보 정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팔공총림선원 · 덕숭총림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으며, 현재 해인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연꽃명소 달군 전통문화 향연



전국적인 연꽃 명소로 꼽히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2018 전주연꽃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성우)은 7월 21~22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북은행, (사)날마다좋은날 후원으로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연꽃향기에 취한 문화향연'을 주제로 열린 연꽃축제는 국악공연, 통기타 연주 등의 각종 공연과 전북 각 사찰 합창단이 출연하는 전북불교합창제가 진행됐으며, 전통놀이문화 체험도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계 공덕이 학교생활 힘 되길"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7월 20일 경내 육화원에서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 수계법회 및 하계방학 인성계발 문화체험학습활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돈관 스님은 "수계 공덕의 힘이 참 불자로서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학생과 교직원 124명이 계를 받았으며, 한마음으로 '참된 스승'과 '학업성취'를 발원했다. 수계식 이후에는 조별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감사편지 낭독, 촛불의식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흩어진 부산불심 하나로 모아 화합"

Interview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초대회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불교 이미 통합 찬성
남은 문제 열린 자세로 소통
불교계 대 사회적 역할 위해
봉사와 나눔 실천 이끌 것

"부산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많은 의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흩어진 부산 불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 불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자비나눔과 불교 대사회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통합을 위해 조직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수관 회장은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인 신도회 통합을 위해 열린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는 7월 25일 기자간담회서 "이미 신도회 통합에 대한 의견은 모두 찬성이다. 진정한 화합을 위해 소소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일만 남았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7월 12일 총연합신도회 출범식 당시 부산불교신도회가 일방적인 집행부 구성과 소통 부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며 총연합신도회 출범은 '반쪽 통합'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는 당시 부산불교신도회가 추천한 수석부회장의 자격 부적절성 논란이 발생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부산신도회가 추천한 인사는 수석부회장을 맡기에 나이가 너무 젊고, 불교계 영향력도 적어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진 않았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대의를 위해 낮은 자세로 양보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은 최근 2년간 부산불교연합회장인 경선 스님이 신도회 통합을 위해 매진해온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두 신도회 모두 화합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됐지만 충분히 대화해 모두 통합에 찬성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재계에서 활동하는 불자 기업가들의 참여를 늘리고 자비나눔과 사회적 역할에 이바지하도록 신도회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현재는 흩어진 부산불교 불자들을 모아 사회공헌 역할을 다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대상'을 제정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불자를 발굴해 매년 연말 시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자 봉사단체를 독려하고 나눔을 실천해 밝은 사회에 일조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교국가들과 교류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 역동적인 부산불교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국내에서 (주)YC-TEC을 비롯한 여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불자 기업가다. (주)YC-TEC 베트남, (주)YC-TEC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을 맡고 있으며, 범어사 신도회장,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불교발전에 이바지해왔다. 2009년부터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활동하며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증진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양국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고 있다.

"자비나눔 행보 계속 잇는다"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회장



"자비나눔의 행보를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교구 내 사찰의 애로점을 듣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의 실질적 활동을 이끄는 신도회장에 이금석 신도회장〈사진〉이 재선출됐다. 7월 26일 진행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에 성공한 이금석 신도회장은 첫 임기동안 진행한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금석 신도회장은 출판사인 신원문화사에서 일할 때 노적사 사보 편집을 도운 인연으로 불자가 됐다. 1996년 도서출판 무한을 설립, 제작 · 기획 · 광고 · 편집 등을 해오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직할교구신도회장을 맡아 자비실천 골프대회, 일일찻집 등 다양한 모금행사를 통해 기금을 모아 소외계층을 도왔다.

이 신도회장은 "직할교구 신도회는 제1교구 신도회로 전국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가장 먼저 발로 뛰고 궂은일도 앞장서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구 목적사업 활발한 참여"

김봉영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장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12대 김봉영 신도회장〈사진〉 취임식을 열고 지역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7월 15일 월정사 법륜전에서 봉행된 취임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본 ·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봉영 신도회장은 "본 · 말사간의 화합과 신도회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포교와 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1988년 형제중기를 시작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지구종합건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원주불교대학 6기를 졸업하고 건강한 신행생활을 모토로 2005년 원주불교산악회를 조직,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또 원주불교대학 동문회장을 거쳐 월정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오랫동안 지내왔다.

김 신도회장은 "교구는 현재 명상마을 안착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교구 목적사업의 성공을 위해 신도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원봉사 박람회 달군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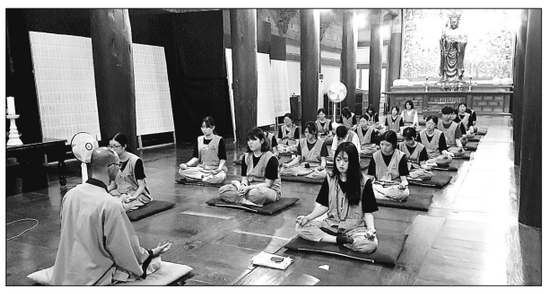
탑사 · 쌍봉사 청소년 봉사박람회 참가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7월 20일 진안군민 자치센터 광장서 열린 제3회 진안군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해 △합장주 만들기 △불교관련 상담 △떡볶이 스님 요리솜씨 보여주기 등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스님들은 400여 명의 청소년들과 봉사활동 정보를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업에 지친 청소년 위로

불국사, 경북생활과학고 템플스테이



경주 불국사는 7월 17~18일 '2018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 2기생 현장체험학습 일환으로 사찰을 찾은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 22명과 교사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템플스테이는 취업과 자격증 준비 등으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불국사는 학생들에게 △스님과의 차담 △108배 △염주 만들기 △사물소리 명상 △참선 △숲속걷기 명상 △불국사 사찰투어 등을 제공했다. **윤호섭 기자**

"발달장애인과 희망 물들여요"

해남장애복지관, 염색교육 '꽃물드림'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보련)은 12월까지 16회에 걸쳐 만60세 이하 성인발달장애인 14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염색교육 프로그램 '꽃물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복지관은 염색교육을 비롯해 부모-자녀 재발견 프로그램, 염색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원 수습기자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 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신화 종합 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범종 공장 개업 한정
파격가 할인 판매합니다.

-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 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그 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